

데스크 시국



박진현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지난달 31일 전 세계의 이목이 홍콩의 빅토리아 하버에 쏠렸다.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대규모 불꽃놀이와 음악쇼가 펼쳐지는 신년맞이 대규모 카운트다운(New Year Countdown Celebration)을 보기 위해서다. 매년 열리는 이벤트이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웠다. 20여 년간 베일에 가려졌던 서구룡 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이하 WKCD)가 행사의 메인 무대였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WKCD는 1998년 홍콩이 '아시아의 문화허브'를 내걸고 빅토리아 하버 일대의 간척지 12만평에 예산 3조원을 투입해 17개의 초대형 문화 인프라를 건립하는 꿈의 프로젝트다. '쇼핑과 미식의 도시'에서 벗어나 뉴욕이나 런던처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亞문화허브’된 홍콩 서구룡

실제로 홍콩은 지난 2019년 중국식 오페라 하우스 '시추센터'(Xiqu Center)와 복합문화소방물 'K11 뮤제아' 개관을 필두로 신개념 미술관 'M+ (엘플러스)', 홍콩고궁박물관, 아트파크 등 오는 2026년까지 20여 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가운데 지난 2021년 문을 연 M+미술관은 서구룡문화지구의 꽃이다. 이름 그대로 '미술관 이상의 미

문화광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술관'(More than Museum)을 표방한 이 곳은 개관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단숨에 글로벌 명소로 급부상했다. 33개의 전시공간(6만 5000㎡)을 통해 현대미술부터 근대미술, 영상, 디자인까지 아시아 최초의 동시대 시각미술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무엇보다 빼어난 건축미와 화려한 컬렉션이 압권이다. 영국 데이브모던 미술관을 설계한 스위스 건축가 헤르조그&드라퐁은 집은 녹색 유약을 건물 외벽에 입혀 대나무를 형상화하고 영화관, 레스토랑, 카페, 옥상 정원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홍콩의 랜드마크로 탄생시켰다. 낮에는 전시를 감상하고 밤에는 홍콩의 야경을 즐기는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것이다.

특히 8000여 점에 달하는 컬렉션은 '아트홍콩'을 이끈 힘이다. 개관 이전부터 캘리티 높은 소장품 확보에 주력한 홍콩은 2800억 원을 작품구입비로 지원했고, 스위스 출신의 유명 컬렉터 울리 지그(Uli Sigg)에게 러브콜을 보내 중국미술컬렉션 1460여 점을 기증받는 쾌거를 거뒀다.

새해부터 홍콩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 놓은 건 지부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문화수도 조성사업)와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문화수도조성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3년, 기자가 WKCD 프로젝트의 현장을 둘러볼 때만해도 지금의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마찬가지로 당시 WKCD의 주요 시설들이 건립중이어서 허허벌판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구룡전철역에서 내려 빅토리아 하버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라는 안내판이 유일했다. 광주의 ACC가 하루가 다르게 속속 모습을 키워가고 있는 것과 달리 WKCD는 세상에 나올 기미가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났다. 홍콩이 정중

동(靜中動)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광주는 정부의 예산 삭감 등 적잖은 우여곡절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핵심 시설인 ACC는 2차레 연기 끝에 당초 목표 보다 5년 늦게 개관했다.

개관 10돌 맞은 ACC 미래는

그렇다고 지나간 세월을 탓하기에는 광주가 갈 길이 멀다. 마침 올해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근간인 ACC가 개관한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다행스럽게도 ACC는 시행착오를 딛고 제2의 비상을 향한 출발선에 섰다. 개관 초기 동시대 현대예술의 발신지라는 틀에 갇혀 난해한 콘텐츠로 '그들만의 전당'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수년전부터 예술성과 대중성을 아우른 '열린' 콘텐츠를 보완해 문턱을 낮추고 있다.

그동안 ACC가 진행한 프로그램은 총 1910건(2024년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자체 창·제작 및 기획한 콘텐츠가 1255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기획한 2개의 융복합콘텐츠 전시는 개관 이래 각각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연간 방문객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2015년 개관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방문객도 1862만 명에 달하는 등 매년 방문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광주시의 문화컨텐츠 타워인 광주문화재단(재단)도 장밋빛 미래를 향한 대장정에 나서 희망을 갖게 한다. 지난해 10월 미래문화도시, 예술지원 혁신방안, 시민중심 공간브랜드 3개 분과를 구성해 45명의 민간산학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도시의 미래를 그려 나가기로 한 것이다. 올해로 창립 14주년을 맞은 재단이 매머드 '문화예술 정책 거버넌스'를 조직해 광주의 내일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문화로 먹고 사는 도시'를 내건 광주의 상상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길 기대한다.

은편칼럼

새해의 바람



박현순
전남대 명예교수
전 내발 카트만두대 객원교수

19세기 말,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시덴스트라이커(Sydenstricker) 부부 사이에 태어난 펄(Pearl, 1892-1973)은 존 로싱 벅(John Lossing Buck)과 결혼하므로 남편 성을 따라 펄 벅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1938년, '대지'로 노벨문학상을 받았고 1968년에 한국 전쟁 현혈아를 주제로 '새해(The New Year)'를 출간하였다. 펄 벅의 한국 이름은 '박'에 가까운 박 씨 성을 써서 '박진주'였다.

소설에서 크리스토퍼 윈터스는 결혼 후 몇 달 만에 한국전쟁에 참전했지만 다행히 살아서 돌아왔다. 삼십대에 주지사로 출마하여 한창 기세를 올릴 즈음, 한국에서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전쟁 중에 태어난 아이, 한국 어머니의 성과 미국 아버지의 이름을 딴 김 크리스토퍼는 아버지가 없어서 출생신고를 못하니 학교에 못 가고 외할머니의 냉대를 받으며 고급 요정을 경영하는 어머니를 업머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못 찾고 방황하던 열한 살 현혈 소년에게 단 하나의 구원은 미국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로리는 엄청난 좌절과 분노, 실망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남편의 옛 여자라 그의 아들을 만나러 한국에 왔다. 그때의 한국은 좌우 이념 갈등 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고 현혈 아들에 대한 사기가 사투 위협적이라 아이의 운명이 로리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결국 로리는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오지만 현혈자가 세상에 알려지면 선거전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에 먼 곳의 기숙학교에 맡겼다.

한국에서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자신이 거부당한다는 것을 감지한 어린 소년은 정체성 혼란과 우울감으로 망들어 가지만 주지사를 넘어 미국 대통령을 꿈꾸는 남편은 아이를 집에 데려올 수 없었다. 그러나 불임인 아내 내는 해양과학자로서 현혈이 유전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기에 미래의 기대까지 더하여 아이를 데려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

연말 파티, 주지사에 당선된 그는 수많은 손님을 앞에서 물어두었던 과거를 고백한다. "저도 그 젊은이들 중의 하나였습니다"를 반복하며 참전 당시를 회상한다. "그때는 그것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으며 여자의 품에서, 낯선 여자의 품에서나마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 그 짧은 결합은 흔히 내일의 죽음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새로운 인종', 세상이 어둠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도 전에 너무 일찍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크리스토퍼를 방안으로 불러들이

는데 나란히 선 두 사람은 너무도 닮은 꼴, 그들이 부자 시간임을 몰라볼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는 아이를 '우리 아들'이라 부른다. 아들은 아버지의 정을 받고 한국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청아한 음성으로 '나의 조국, 그대를 위해'를 불렀다. 손님들은 원로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 아들을 둘러싸고 환영과 축하인사를 건넨다. 바로 그때, 종이 울리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새해의 축가를 부른다.

한 때는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여 거리를 방황하던 참담한 아이는 혼란기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한국 어머니의 포기하는 사랑, 미국 어머니의 받아들이는 사랑, 아버지의 책임감과 결단은 위기를, 하마터면 치명적이었을 그 위험한 순간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며 아들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새해를 맞이한다. 펄 벅의 '새해'는 아버지와 아들, 두 크리스토퍼를 통하여 가정의 화합을 넘어서 국가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암시한다.

어린 크리스토퍼의 삶에서 일제 치하, 한국전쟁 등 숱한 격랑을 겪고 살아남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고난과 위기를 넘어서 윈터스 가정애, 그리고 미국의 미래 세대에 새로운 희망 아이론으로 떠오르는 크리스토퍼 주니어처럼, 부디 우리의 2025년 새해가 갈등과 분열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화합과 번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로운 남북통일의 길이 열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기고

안전한 겨울 나려면



조귀임
전 광주 백운초등학교 교사

소담한 함박눈이 펄펄 쏟아진 날! 하얀 눈꽃길로 펼쳐진 천변로를 거닐며 겨울왕국의 주인공마냥 옛 추억을 소환해 본다. 순백의 꽃, 은빛설국이 정갈하고 순결하면서도 겨울다운 운치를 연출한다. 살을 에는 듯한 매서운 북풍한설에 온전지가 쪼그라 얼어붙어 설국에 온 듯하다. 집을 나서기 전, 옷을 따뜻하게 입고 방한용품을 착용해 체온유지에 힘썼다. 눈이 소복소복 쌓이니 어린시절로 돌아가 마냥 좋아서 생글거리고 신나고 들뜬 기분이다.

초등학교 앞 공터에는 찬방지족 아이들이 추위로 아랑곳하지 않고 신발림이 나서 눈길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땀병대며 겁 없이 설쳐댄다. 아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소리소리 지르며, 두손으로 눈을 문쳐 눈덩이를 친구들에게 마구마구 던진다. 웃이랑 신발이랑 후

죽근하게 젖어서 얼마나 적적하고 추울까? 집에 가서 엄마한데 혼자지나 앉을까 걱정된다. 무절제한 발놀림에 눈발은 순식간에 몽개지고 짓이겨서 순백의 미는 사라져 버렸다.

남편과 즐거움이 있는 겨울이지만 자칫 추위에 건강이 상할 수도 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날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평소와 다른 요령들이 필요하다. 우선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체온 유지를 위해 번거롭더라도 내복이나 얇은 옷을 껴 입고 목도리, 외투, 보온장갑,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내린 눈은 방지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치워 낙상 사고를 예방한다.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은 줄이며 한파에 취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한층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올 겨울도 수시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쌓인 눈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쌓인 눈이 20cm이상(산지는 30cm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대설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해에 풍년이 들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는 눈과 관련한 다양한 속담도 있다. 먼저 '눈은 보리의 이불

이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겨울에 많은 눈이 와서 보리를 폭 덮게 되면 보리가 얼지 않아서 풍작을 이룬다는 뜻이다. '겨울 보리밭은 밭을수록 좋다'는 말은 보리를 자주 밟아주면 수분증발이 억제되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 잘 자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매서운 추위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파! 한겨울 눈이 펄펄 쏟아지면, 아름다운 설경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급격하게 눈이 오는 대설에는 큰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이 쌓이는 날씨는 모두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날이다. 되도록 외출은 낮에 하고 보행시에는 보폭을 줄여 미끄러움을 방지해야 한다. 나이 상관 없이 걷는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끄럽지 않고 굽이 낮으며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는 게 좋고, 다소 춥더라도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부모님과 따로 살거나 부모 혼자 사는 가정이 있는 자녀들은 특히 겨울 내내 신경을 써야 한다. 부모님께 수시로 전화해 바깥 출입을 자제시키고 혹시나 낙상사고 있었는지, 넘어졌음에도 자식 걱정에 숨기는 것은 아닌지 파악해야 한다. "추운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온다. 분명, 인생도 그러하다!"

社說

제주항공 참사 치유 위한 사랑과 연대의 확산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각계의 온정과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조건 없는 봉사와 사랑, 아픔에 대한 연대가 강화되면서 감동마저 주고 있다. 여기에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움직임도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다행스럽게 그지 없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참사 이후 5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 지원 및 돌봄, 교통 안내, 사랑의 밥차 운영, 재난 심리, 현장 수습 지원 등을 도왔다. 이들 중 단연 눈에 띄는 봉사자는 목포에 사는 청각장애인 부부였다. 이 부부는 사고 당일부터 날마다 커피·유자차·생강차 300인분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이들은 매뉴얼 옆에 '저희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손짓으로 말씀해 주세요'라는 글귀를 적어 놓아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시애틀에서 20년 이상 거주

한 재미동포 부부는 매일 주변 정소와 후원물품 이송을 돕고 있는데, 신상 밝히기를 거부하며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위로와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합동위령제를 열고 분향소를 연장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460억원을 투입해 무안공항 인근에 7만㎡ 규모의 추모공원을 조성, 아픔을 기억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 지원 및 돌봄, 교통 안내, 사랑의 밥차 운영, 재난 심리, 현장 수습 지원 등을 도왔다.

이들 중 단연 눈에 띄는 봉사자는 목포에 사는 청각장애인 부부였다. 이 부부는 사고 당일부터 날마다 커피·유자차·생강차 300인분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이들은 매뉴얼 옆에 '저희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손짓으로 말씀해 주세요'라는 글귀를 적어 놓아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무기수 25년만에 무죄... '진실의 힘'이 증거

진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김신혜씨가 사건 발생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김씨는 2000년 3월 완도에서 아버지에 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씨의 자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는데 김씨는 가족행위에 의한 강압 수사와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2015년 재심을 청

구했다. 법원은 4년 만인 2019년 재심을 받아들였고 재심 청구 10년만에 무죄로 한을 풀었다.

그제 장흥교도소에서 풀려 난 김씨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이 수십 년 걸려야 하는 일인가"라며 수사기관에 대한 서운함을 애둘러 표현했다. 가석방 감형 등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 왔으니 그럴만 하다. 김씨 사건은 국내에서 무기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25년 동안 굶지 않은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강력한 증거가 됐다.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와 언론 등 지여사회의 꾸준한 관심도 무죄에 힘을 보탤었다.

김신혜 사건은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철저한 증거 채택 주의 수사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철옹성(鐵鑿城)이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신했던 남한산성이나 정조가 축성한 수원화성이 이에 해당한다. 무쇠로 만든 독처럼 튼튼하게 쌓은 성을 뜻하는 철옹성은 일반적으로 함락시키기 어려운 장소를 빗대 방비나 단결 따위가 견고함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때 역사적으로는 철옹성 본연의 의미인 방비보다는 성의 몰락인 '함락'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다. 성을 뺏긴 것에 주목

해 이유를 찾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에서 나온 발상이다. 트로이인들은 이 목마를

상징이었지만, 비잔틴-오스만 전쟁에서 강력한 포병과 군함을 산으로 끌고 가 골드호른 때 인조가 피신했던 남한산성이나 정조가 축성한 수원화성이 이에 해당한다. 무쇠로 만든 독처럼 튼튼하게 쌓은 성을 뜻하는 철옹성은 일반적으로 함락시키기 어려운 장소를 빗대 방비나 단결 따위가 견고함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때 역사적으로는 철옹성 본연의 의미인 방비보다는 성의 몰락인 '함락'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다. 성을 뺏긴 것에 주목

해 이유를 찾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에서 나온 발상이다. 트로이인들은 이 목마를

이와 관련 성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획기적인 전략과 압도적인 공세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오만과 패착에 의해 스스로 무너진 것인지로 나눠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콘스탄티노플(현재의 이스탄불) 성벽의 붕괴가 전자의 예다. 비잔틴제국 테오도시우스 2세가 447년에 골드혼 해협과 마라마라 해로 둘러싸인 육지에 삼중의 성벽을 쌓아 건설한 요새는 이후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함락을 허락하지 않은 난공불락의

따라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30여 명의 군인을 그 안에 매복시켰다. 트로이인들은 이 목마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성안으로 들여놓고 축제를 열다가 화를 당한다. 목마 속에 숨어 있던 그리스 군인들이 성문을 열고, 철옹성 트로이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최근 내란 수괴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관저에 숨어 버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두고 '한남동 철옹성에 갇힌 대통령'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하지만 철옹성 역시 깨지는 법,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순리인 듯하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